

Perception and Need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to Age Integra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¹⁾²⁾

Seo, Hyeyeong (Dong-Eui University)

Ahn, Youngsik³⁾ (Dong-Eui University)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find a new plan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by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need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on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from an age-integrated perspectiv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08 current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of all ages in Ulsan. The survey tool was developed by modifying, supplementing, and reconstructing questions related to awareness and demand of age integra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aging society, the perception of the age-integrated society, the balance of work-leisure-learning in the present life, the perception of the age-integra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all age groups. Second in the needs, there were various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groups in the areas of necessity of contents, preparation period, education method, and preparation subject. In conclusion,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all areas of recognition and needs by age group. Reflecting on this, a new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is required to diversify content, timing, methods, preparation subject, and support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for teachers of all ages.

Key Words : Secondary school teachers, integration of age, needs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recogni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1) This research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 Seo, Hyeyeong' s doctoral dissertation.

2)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Grant (201901930001).

3) Corresponding Author: Ahn, Youngsik, Professor,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ju, Busan, Korea, 47340 / E-mail: ays@deu.ac.kr

중등교원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¹⁾²⁾

서혜영 (동의대학교)

안영식³⁾ (동의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중등교원들의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퇴직준비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전 연령대의 교원 1,035명을 편의표집하여 설문 후 93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미응답 문항을 포함한 27부를 제외한 908부를 통계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에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50대,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은 30대,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정도는 40대, 퇴직준비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둘째, 요구에서 ‘내용의 필요성’에서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은 30대 이하, 여가-학습의 통합은 40대, 세대통합은 40대가 가장 높았다. ‘준비시기’는 여가-학습의 통합은 30~50대,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은 40~50대, 세대통합은 50~60대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에서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준비주체’에서도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식과 요구의 모든 영역에서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입직 시부터 전 연령대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연수와 퇴직 후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균형적인 삶을 위해 퇴직준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주체, 지원 등을 다양화한 새로운 퇴직준비교육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중등교원, 연령통합성, 퇴직준비교육 인식, 퇴직준비교육 요구

1) 이 논문은 제1저자 서혜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2)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201901930001).

3) 교신저자: 안영식, 교수, (47340)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 E-mail: ays@deu.ac.kr
논문투고: 2019. 8. 5 / 심사일자: 2019. 8. 5 / 게재확정일자: 2019. 8. 19

I. 서론

한국사회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추세는 모든 국민의 기대수명과 실질수명이 연장되면서 연령통합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등교원들의 퇴직준비교육도 지금까지 정년퇴임 시점을 전후한 시기에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그 내용에서 노년의 삶과 일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김경호, 2004; 김세돈, 김상조, 2006;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2003; 장지연, 2004; 허원구, 이정훈, 2004; Culter, Poterba, Sheiner, & Summers, 1990). 첫째, 노인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으로 두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주경희, 김주현, 정순돌, 임병우, 2017; 최숙희, 2008). 둘째, 생산인구의 감소, 소비 위축 및 고용창출 미흡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김세돈, 김상조, 2006)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셋째, 급격한 노령화는 노인의료 및 복지비용 증가와 국민연금 수급율의 급증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김경호, 2004).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회구성 원리로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구현하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어렵고 개인의 삶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다(정경희, 2001).

연령통합은 주로 연령분절과 연령차별에 대한 대안으로,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산업화에 기반한 퇴직제도는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여부를 선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습, 장년기 일, 노년기 여가라는 고정된 생애주기에 의한 연령분절적 사회체제를 만들었다(Loscocco, 2000). Riley와 Riley(1994)는 연령통합을 사회제도 내에 진입과 퇴거 및 수행과정에서 연령장벽을 없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상태로 개념화했다. 또한, 연령통합은 사회구조 속에서 일-여가-학습의 세 영역이 모든 생애 주기 속에서 통합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연령통합사회는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의 진입에 차별이 없으며, 사회에서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학습, 일, 여가의 접근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Riley & Riley, 2000).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OECD 국가 중 주관·객관적 연령통합 수준이 낮고, 법제도적 및 경제활동과 교육영역에서도 연령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정순돌 외, 2016). 또한, 노인을 사회의 주류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부족하다(최성재, 2014). 고령화 사회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노년기에도 일-여가-학습이 안배되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세대통합으로 삶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준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원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을 90%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구경희, 2014; 김희수, 2001; 박기열, 2011; 송기창, 2006; 최창희, 2006), 퇴직준비교육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교원들이 70.3% 였다(구경희, 2014). 교원들의 퇴직준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기범(2011)의 연구가 있고, 중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 윤영채(2017)의 연구가 있다. 퇴직준비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송기창, 2006; 이정의, 2002)가 있고, 노후 생활에 대한 연구(박표진, 2009; 윤영채, 2017)가 있다. 연령통합적 관점의 연구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김명희(2016)의 질적연구가 있고, 퇴직준비교육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가 있다(구경희, 2014; 김신일 외, 1999; 정기범, 2011).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주로 40대 이후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 불안, 사회적응, 노후생활 위주의 관점으로, 퇴직 직전의 1-2주 정도의 기간에 정부 주체의 집합교육을 전제하고 있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의 위험을 극복하고 연령통합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는 정부의 정책전환과 더불어 개인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특히 교원들의 인식전환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교류가 활발한 현장인 동시에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여가의 불균형이 가장 심화된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교원들은 높은 정년과 안정된 퇴직연금으로 인해 정부나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퇴직준비교육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여가의 불균형이 가장 심화된 중·고등학생의 교육을 맡아, 일 위주의 삶을 살며 퇴직준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등교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위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는 연령분절적 생애체제에서 벗어나 일-여가-학습이 안배되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세대통합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중등교원들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과 연령통합사회와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퇴직준비교육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중등교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중등교원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고령화와 연령통합사회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ing)에서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지구촌의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령화를 세계적인 위기로 언급하였다. 고령화는 세계은행의 생애위험분류(정순돌, 최혜지, 배은경, 이경민, 2011; Holzmann & Jorgensen, 2000),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경제적 위험분류(정지범, 류현숙, 2009)에서도 제시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함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세대와 손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김호식, 정미녀, 손경숙, 2005).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사회·교육·문화적인 체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기치 못했던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의 청년실업, 가족부양의식 쇠퇴로 인한 노인의 빈곤, 소외와 고립 등이 사회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OECD 국가 중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1위인 위험사회가 되었다.

UN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연령의 개념, 연령통합의 개념 및 연령통합사회의 개념에 대해 제안하며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연령의 개념은 사람들이 지각하는 방식에 연대기적 연령, 생물학적 연령, 심리학적 연령, 사회적 연령, 주관적 연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진, 1995). 연령의 개념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연대기적 연령에 의한 획일적 기준으로 모든 사회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년기는 살아온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삶의 궤적에 따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주관적 연령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령통합의 개념은 최근 고령화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늘어난 노인인구와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정순돌 외, 2016).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시작된 연령통합은 단일개념보다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두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연령유연성은 사회구조에 의해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연령에 의해 특정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집단들 간의 교류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증진을 의미한다(Riley & Riley, 2000).

Uhlenberg(2000)는 연령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네 가지로 보았다. 먼저, 생애주기의 유연성(life course flexibility)으로 인해 연령의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둘째,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교육과 직업에 노인의 참여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연령통합은 무엇보다 연령유연성으로 인해 생산적인 노후(productive aging)가 증가 될 것이다. 즉, 노인도 일, 자원봉사, 돌봄 등에 있어서 연령제한 없는 활동이 증가하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성(civility)과 관련된 연령의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손자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함께 교류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연령통합(age integration)이란 연령으로 인한 장벽이 없어지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경호, 2005). 정순돌, 기지혜, 최혜지(2015)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개인 및 사회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및 사회적 차원으로는 발달이 유아동과 같은 특정 연령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개인적 삶에서는 일, 여가, 교육이 생애단계별로 하나의 영역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영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과 노인, 유아와 청소년 등 여러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근로를 하거나, 교육을 함에 있어 제도적, 사회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통합적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노인의 경제적 안정감을 박탈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유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성년과 중장년기에 근로를 하여 수입을 얻게 되며, 노년기에는 은퇴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회적인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 이런 생애주기에 기반하여 은퇴, 연금 등이 계획되어 왔는데, 연령통합사회가 되면 노동시장의 참여에 나이로 인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연령기준으로 부과되는 연금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연령통합사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로 노동시장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정순돌 외, 2015). 즉, 연령통합사회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며, 기존의 연령분절적 패러다임에서 기득권층, 가령 성인기에 직장을 가지고 노년기에 연금을 받는 대상들은, 노년기에도 일자리를 가져야 하거나 연금이 변동되는 등의 편의의 상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통합에 대한 이익은 잠재적으로 그 실체를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령통합사회 구성에 있어서 경제적 보장의 정책변화로 인한 경제 및 심리적인 손실과 연령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의 실질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가치와 세대 간의 공유나 사회통합 같은 가치 간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김경호, 200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된 연령통합사회는 기존 사회와 상당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

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존 세대 공무원들의 연금은 보장하되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로 이행 중이다. 신입 교원들의 연금은 지금처럼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세대별로 퇴직준비에 대한 요구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통합성은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두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연령유연성은 연령차별 없는 사회참여와 청소년기 학습, 중년기 일, 노년기 여가라는 연령분절적 생애체계에서 벗어나, 생의 모든 단계에서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균형적인 삶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다양성은 가족과 사회 내에서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세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령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연령제한 없는 사회참여를 위한 정년연장 및 폐지, 세대통합을 위한 일-여가-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전 생애 동안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균형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들 또한, 모든 생애 과정 속에서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균형적인 삶의 필요성 및 세대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교류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준비가 요청된다.

2.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

Warr(1987)에 의하면 일은 인간에게 통제의 기회, 기술사용의 기회, 목적의식과 사명감, 다양한 직업환경 경험, 환경에 대한 명료한 이해의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신체적 안전 보장, 대인간의 접촉기회 제공 및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 준다. 협의의 일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광의의 일은 인간의 폭넓은 성취를 즐기는 활동이라고 하였다(Atchley & Barush, 2004).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에 대해 보다 확장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퇴직 후의 일도 기본적으로 보수를 전제로 하지만, 보수 이상의 의미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다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비직업적인 일을 퇴직 후에는 직업적인 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Parker(1971)는 여가를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남는 시간이라고 정의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점차 인간의 기본 권리가 되어가고 있다(김정하, 1995). 최근 여가는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의 소극적인 측면을 넘어서 인간관계 증진, 자기계발, 자아실현 등의 적극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여가와 달리 노인의 여가는 ‘시간’의 의미에서 강제적이며, 맹목적이고, 무료한 시간을 소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백경숙, 권용신, 2007).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적극적 여가활동 중 하나로, 여가와 학습의 통합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Houle(1988)은 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동기를 세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 목표 지향적 학습자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둘째, 교육 내용보다는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자체를 즐기기 위해, 셋째, 학습지향적 학습자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식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신덕상, 2014). 지금까지 퇴직 후 교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으로 건강관리, 취미·오락 활동 중심의 소극적인 여가로 보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퇴직 후 주어진 30여년을 여가활동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적 역량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활동, 재능기부, 그동안 일과 가정에 묶여서 미루었던 진정한 자아발견 및 자아실현 등의 적극적인 여가를 위한 준비로 여가와 학습의 통합이 필요하다. 즉 인간의 전 생애 동안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연령통합사회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Toress-Gil(1992)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할 주요 과제는 세대 간 공존으로, 4세대의 공존은 기본이고 5세대 이상이 공존하는 사회가 도래하면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노인부양부담 증가, 국가경쟁력 약화, 노인 의료비 및 노인연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 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통합성의 관점을 생애 주기별로 특정과업을 수행했던 연령분절적 사회체계에서 벗어나 노년기를 포함한 생애 전 과정에서 일-여가-학습이 통합될 수 있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삶의 주요 영역인 일-여가-학습에서 일-여가의 통합 관점으로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다양한 여가활동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여가-학습의 통합, 함께 어우러져 살며 세대 갈등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세대통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퇴직준비교육의 요구 및 지원에서 내용의 필요성, 준비시기, 준비방법, 준비주체에 대해서도 유연한 시기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주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지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수경비 부담 차원에서 벗어나 정보지 발간, 상담사 배치, 시·도교육청 중심의 운영 및 정년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중등교원을 조사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울산광역시에는 중학교 63개교에 교원 2,418명, 고등

학교 56개교에 교원 3,159명 총 119개교에 5,577명의 중등교원이 근무하고 있다(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2017.01.01). 다양한 전공과목과 전 연령대의 중등교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설문대상 학교의 기준은 학교 규모가 15학급 이상, 교원 수 30명 이상인 학교로 하였다. 규모가 이보다 작은 학교에는 주당 단위 수가 낮은 교과목인 예·체능 등의 교과목 교원은 배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5개 구·군은 교통, 교육환경, 생활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교원들의 근무 선호도가 다르다. 선호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신입교사가 많아 특정 연령대의 교원이 편중될 수 있다. 표집대상이 된 중·고등학교 21개교의 교원 1,0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935부를 회수하였고, 일부 미응답 문항을 포함한 27부를 제외하고 908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율은 90.3% 이었다.

연구절차는 선행연구 고찰, 조사도구 개발, 설문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조사도구 개발은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그룹의 검증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평생교육학과 교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7명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전, 설문지 문항에 대한 내용 및 검사시간 등 실시상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18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과의 면담을 거쳤다. 전문가 그룹과 포커스 그룹의 검증을 거친 예비조사도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09명의 예비조사 설문지로 신뢰도 검증 후, 1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총 78문항의 본 조사도구를 확정지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하여 총 908부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설문조사 설계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중등교원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 관련 18개 문항, 요구 관련 53개 문항, 인구학적 특성 7개 문항으로 총 78문항을 개발하였고, 응답은 5점 Likert 척도 및 선다형을 사용하였다.

가. 조사도구의 문항 구성

퇴직준비교육 연령통합성에 대한 중등교원의 인식과 관련하여 18개 문항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5문항은 우리나라 고령화에 대한 인지, 노인부양부담 증가, 세대 간 일자리 경쟁, 국가경쟁력 약화, 고령화 사회와 나의 연관에 관한 문항을 정순돌 외(2011)의 고령화 사회의 위험인식에 관한 문항을 참고로 재구성하여 개발하였

다. 둘째, 연령통합 사회 인식 5문항은 연령유연성 관련 3문항과 연령다양성 관련 2문항을 정순돌 외(2015)의 연령통합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연령유연성 관련 문항은 정년연장 및 폐지, 연령제한 없는 사회참여, 연령통합적인 일-여가-학습 인프라 구축 3문항이다. 연령다양성 관련 문항은 가족 내 세대 간 교류, 사회 내 세대 간 교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현재 삶의 연령통합 정도와 관련하여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의 안배 정도, 현재 삶의 일의 비중, 현재 삶의 여가 비중 3문항을 정순돌 외(2015)의 연령통합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넷째, 퇴직 후 연령통합적인 삶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해 퇴직 후 삶의 일-여가-학습의 안배, 퇴직 후 일을 위한 자기개발, 퇴직 후 여가를 위한 자기개발, 평생학습의 이해,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 5문항을 정순돌 외(2015)의 연령통합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요구와 관련하여 내용 관련 48문항과 지원관련 5문항 총 53문항을 개발하였다. 내용 관련 요구문항은 내용의 필요성 12문항, 준비시기 12문항, 교육방법 12문항, 준비주체 12문항을 개발하였다. 지원관련 문항은 연수비 지원, 정보지 발간, 시도 교육청 중심 운영, 상담사 배치, 관련법 개정 5문항을 개발하였다. 응답 형식은 내용의 필요성과 지원은 5점 Likert 척도로, 준비시기, 교육방법, 준비주체는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퇴직준비교육의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영역에서 선행연구들은 일을 재취업과 창업의 직업적일에 대해서만 요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사회에서 노년기 일은 보수가 우선시되는 직업적일과 세대통합과 교류 등의 의미가 우선시되는 비직업적인 일의 통합 관점에서 재취업, 창업 외에 비직업적인 일로서 사회 공헌일자리와 돌봄활동을 추가하였다. 둘째, 여가-학습 영역에서 선행연구들은 여가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건강관리, 재정관리, 취미·오락 활동, 인간관계, 봉사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여가-학습의 통합으로 여가활동인 건강관리, 재정관리, 취미·오락 활동, 인간관계, 봉사활동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통합을 위해 평생학습의 이해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퇴직준비교육에서 세대통합의 영역을 다룬 연구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인과 노화, 퇴직,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한정란, 2000).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대통합 차원으로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위협과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이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퇴직준비교육의 준비시기에서 본 연구는 연령유연성 차원에서 퇴직준비교육의 영역별 준비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시기를 20~60대까지 유연하게 구성하였다. 퇴직준비교육의 교육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집합교육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온라인 강의,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퇴직준비교육의 준비주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부가 준비주체임을 전제하고 있다. 중등교원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은 수직적으로는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서 일-여가-학습의 균형적인 삶이, 수평적으로는 정부, 조직 차원의 시·도 교육청, 개인의 책임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영역별 준비주체를 개인, 정부, 시·도 교육청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퇴직준비교육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수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사회의 연령유연성을 높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정년연장 및 퇴직준비교육 지원법 개정, 연수비 지원, 정보지 발간 3문항과 지역사회 교류를 위해 시·도 교육청 차원의 운영, 상담사 배치 2개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나.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그룹의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평생교육학과 교수 및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7명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도구로 울산광역시에 재직 중인 중등교원 중 전공과목과 전 연령대의 남·여교사 각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 후, 포커스 그룹의 심층면담 내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심의 후 울산시에 재직 중인 전 연령대의 중등교원 10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제가 되었던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78문항으로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본조사 설문지 908부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Cronbach α 계수 값은 .68~.87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신뢰도는 .79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도구의 내용의 필요성 문항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Cronbach α 계수 값은 .75~.89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신뢰도는 .87로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한 도구로 확인되었다. 조사도구의 요구관련 문항 중 지원 관련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도 .85로 나타나 신뢰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 인식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 인식에 대한 차이를 F 검증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 요구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 요구에 대한 차이를 빈도분석, t 검증, F 검증 및 Scheffe의 사후 검증, 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 분석

중등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연령통합성 인식에 대한 전체집단의 특성은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이 4.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 4.13,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4.04,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정도 3.65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연령통합적 삶의 준비에 대해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고,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의 안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세한 영역별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전체집단의 인식

영역	문항	M	SD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고령화 인지	4.31	.69
	노인부양부담 증가	4.32	.70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3.65	.99
	국가경쟁력 약화	3.54	1.07
	고령화 사회와 나의 연관	4.36	.72
	소 계	4.04	.58
연령통합 사회	정년연장	3.52	1.10
	연령제한 없는 사회참여	3.96	.91
	가족 내 세대 교류	4.31	.67
	사회 내 세대 교류	4.38	.63
	세대통합적 일-여가-학습 인프라 구축	4.46	.62
	소 계	4.13	.53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 정도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 정도	3.26	1.08
	현재 삶의 일의 비율	4.08	.77
	현재 삶의 여가 비율	3.61	1.00
	소 계	3.65	.76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	4.31	.62
	퇴직 후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	4.32	.76
	퇴직 후 일 관련 자기계발학습	4.39	.69
	퇴직 후 여가 관련 자기계발학습	4.42	.63
	평생학습의 이해	4.40	.64
	소 계	4.37	.54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은 근무경력, 자녀 수, 결혼 여부, 성별, 전공과목에서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은 근무경력, 자녀 수, 결혼 여부와도 관련이 깊다고 보아 연령에 따른 영역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50대가 4.18로 가장 높고,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은 30대 이하가 4.21,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정도는 40대가 3.76으로, 퇴직준비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은 30대 이하가 4.40으로 가장 높게 나와 연령대별로 영역별 인식에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영역별 인식 차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영역	30대 이하(a)		40대(b)		50대 이상(c)		F	Scheffe
	M	SD	M	SD	M	SD		
고령화 사회	3.93	.56	4.03	.59	4.18	.57	14.24***	a<c b<c
연령통합 사회	4.21	.52	4.06	.54	4.10	.53	6.74***	a>b a>c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정도	3.59	.78	3.76	.75	3.60	.75	5.16**	a<b b>c
퇴직준비교육 연령통합성	4.40	.52	4.38	.54	4.32	.49	1.73	-

** p<.01, *** p<.001

2.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요구 분석

중등교원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요구는 내용에 대한 요구와 지원에 대한 요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내용에 대한 요구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서 내용에 대한 요구는 내용의 필요성, 준비시기, 교육방법, 준비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집단의 요구는 여가-학습의 통합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세대통합이 4.30,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이 3.81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집단의 요구

영역	문항	M	SD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재취업	3.82	.87
	창업	3.51	.92
	사회공헌일자리	4.13	.73
	돌봄활동	3.77	.87
	소계	3.81	.64
	여가-학습의 통합	재정관리활동	4.31
	건강관리활동	4.55	.58
	취미·오락활동	4.44	.62
	관계증진활동	4.37	.64
	자원봉사활동	4.14	.70
	평생학습의 이해	4.26	.64
	소계	4.35	.49
세대통합	노년기 생애발달의 이해	4.30	.69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	4.29	.65
	소 계	4.30	.63

인구학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연령, 근무경력, 자녀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과목, 학력, 결혼 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차이

영역	남		여		t
	M	SD	M	SD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3.72	.64	3.85	.60	-2.81**
여가-학습의 통합	4.27	.51	4.38	.48	-3.04**
세대통합	4.21	.69	4.34	.60	-2.85**

** p<.01

연령별 차이는,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은 30대 이하가 3.95로 가장 높았고, 여가-학습의 통합은 40대가 4.38로 가장 높았다. 세대통합은 40대가 4.32로 가장 높았고, 연령에 따른 영역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연령에 따른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차이

영역	30대 이하(a)		40대(b)		50대 이상(c)		F	Scheffe
	M	SD	M	SD	M	SD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3.95	.58	3.86	.62	3.59	.68	23.40***	a,b>c
여가-학습의 통합	4.34	.51	4.38	.47	4.32	.49	.91	-
세대통합	4.30	.65	4.32	.62	4.27	.64	.48	-

*** p<.001

(2) 준비시기에 대한 요구

준비시기에 대한 요구에서 여가-학습의 통합은 30~50대, 직업적일과 비직업적 일의 통합은 40~50대, 세대통합은 50~60대로 영역별 요구 시기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준비시기에 대한 영역별, 문항별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준비시기에 대한 요구

영역	문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직업적 일과 비직업적 일의 통합	재취업	2(0.2)	26(2.9)	193(21.4)	526(58.3)	156(17.3)	903(100.0)
	창업(귀농포함)	5(0.6)	36(4.0)	241(26.7)	491(54.5)	128(14.2)	901(100.0)
	사회공헌일자리	0(0)	12(1.3)	86(9.5)	450(49.9)	353(39.2)	901(100.0)
	돌봄활동	9(1.0)	10(1.1)	98(10.9)	464(51.6)	318(35.4)	899(100.0)
여가- 학습의 통합	재정관리	70(7.8)	187(20.8)	312(34.6)	246(27.3)	86(9.5)	901(100.0)
	건강관리	70(7.7)	176(19.5)	352(39.0)	244(27.1)	60(6.7)	902(100.0)
	취미·오락 활동	57(6.3)	172(19.1)	316(35.0)	274(30.4)	83(9.2)	902(100.0)
	관계증진활동	50(5.6)	177(19.7)	312(34.7)	282(31.3)	79(8.8)	900(100.0)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포함)	42(4.7)	73(8.1)	194(21.5)	384(42.5)	210(23.2)	903(100.0)
	평생학습이해	35(3.9)	74(8.2)	237(26.3)	405(45.0)	150(16.6)	901(100.0)
세대통합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16(1.8)	34(3.8)	167(18.5)	381(42.3)	303(33.6)	901(100.0)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	48(5.3)	47(5.2)	186(20.6)	396(43.9)	225(24.9)	902(100.0)

(3)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던 내용에 관한 요구 중 교육방법은 빈도분석을 하여 결과를 살펴 보았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은 28.4~44.2%, 온라인 교육 15.7~42.0%, 집합교육 27.0~45.9%로 나타났다. 영역에 따른 문항별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재취업, 재정관리, 관계증진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정보제공 및 상담을 가장 선호하였고, 평생학습의 이해,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는 온라인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다. 창업, 사회공헌일자리, 돌봄활동, 건강관리, 취미·오락 활동은 집합교육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문항별 선호하는 교육방법에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영역별 선호하는 퇴직준비교육의 교육방법

영역	문항	정보제공 및 상담 빈도(%)	온라인 교육 빈도(%)	집합교육 빈도(%)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재취업	518(44.2)	242(20.7)	411(35.1)
	창업(귀농 포함)	436(38.4)	178(15.7)	520(45.9)
	사회공헌일자리	365(33.9)	329(30.5)	384(35.6)
	돌봄활동	349(32.9)	238(22.4)	475(44.7)
여가-학습의 통합	재정관리	471(41.4)	360(31.6)	307(27.0)
	건강관리	359(32.5)	289(26.4)	449(41.0)
	취미·오락 활동	311(29.1)	290(27.1)	468(43.8)
	관계증진활동	422(40.1)	278(26.4)	353(33.5)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포함)	378(35.6)	319(30.0)	366(34.4)
	평생학습의 이해	309(28.4)	457(42.0)	322(29.6)
세대통합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348(31.9)	423(38.8)	320(29.3)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	319(29.6)	453(42.0)	307(28.5)

(4) 준비주체에 대한 요구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던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의 준비주체 요구에 대해 결과를 살펴 보았다. 준비주체가 ‘본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5~63.9%, ‘시·도 교육청’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3~34.0%, ‘정부’ 라고 응답한 비율은 24.0~51.5%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 보면 준비주체가 ‘본인’ 이 가장 높게 나온 영역은 재정관리, 건강관리, 취미·오락 활동,

관계증진활동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가장 높게 나온 영역은 재취업, 창업(귀농포함), 사회공헌일자리, 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학습의 이해,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이 가장 높게 나온 영역은 없었다. 영역별 문항별 퇴직준비교육의 준비주체가 차이가 났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영역별 퇴직준비교육의 준비주체

영역	문항	본인 빈도(%)	시·도교육청 빈도(%)	정부 빈도(%)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재취업	387(31.0)	219(17.5)	644(51.5)
	창업(귀농 포함)	466(39.7)	181(15.4)	527(44.9)
	사회공헌일자리	261(21.5)	355(29.3)	597(49.2)
	돌봄활동	296(24.8)	339(28.4)	559(46.8)
여가-학습의 통합	재정관리	518(43.2)	178(14.8)	503(42.0)
	건강관리	618(52.7)	198(16.9)	356(30.4)
	취미·오락 활동	673(58.4)	203(17.6)	276(24.0)
	관계증진활동	706(63.9)	125(11.3)	274(24.8)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 포함)	410(33.9)	370(30.6)	430(35.5)
	평생학습의 이해	381(31.8)	407(33.9)	411(34.3)
세대통합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517(42.7)	412(34.0)	517(42.7)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	380(31.3)	277(22.8)	557(45.9)

나. 지원에 관한 요구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연수비 지원의 평균이 4.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관련법 개정 4.12, 시·도 교육청 중심 운영 4.07, 상담사 배치 4.03, 정보지 발간 3.95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에 대한 평균은 4.07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지원에 대한 요구

영역	문항	M	SD
지원에 대한 요구	연수비 지원	4.16	.78
	정보지 발간	3.95	.90
	시·도 교육청 중심 운영	4.07	.80
	상담사 배치	4.03	.87
	정년연장, 퇴직준비 지원법 개정	4.12	.87
	소 계	4.07	.67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중등교원들의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퇴직준비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식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50대가,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은 30대,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 안배정도는 40대가, 퇴직준비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둘째, 요구에서 ‘내용의 필요성’에서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은 30대 이하가, 여가-학습의 통합은 40대가, 세대통합은 40대가 가장 높았다. ‘준비시기’는 여가-학습의 통합은 30~50대, 직업적일과 비직업적 일의 통합은 40~50대, 세대통합은 50~60대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에서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준비주체’에서도 영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입직 시부터 전 연령대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연수와 퇴직 후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균형적인 삶을 위해 퇴직준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지원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퇴직준비교육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식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고령화 사회는 나와도 연관이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 시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해 알고 있다.’와 같은 개인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대통합적 일-여가-학습 인프라 구축’, ‘사회 속에서 세대 간의 교류 증대’, ‘가족 내에서 자녀 및 손자녀와의 교류 증대’의 연령다양성에 기반한 세대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반면 ‘연령 제한 없는 사회 참여’와 ‘정년 연장’과 같은 연령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세대와 직접 교류하며 생활하는 교직의 특성상 세대 간 교류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직은 정년퇴직 연령이 높고,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종이라 정년연장과 같은 사회적인 핫이슈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삶의 일-여가-학습의 안배 정도에서 ‘현재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비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퇴직 후에는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균형적인 삶을 원하는 정도가 높았다. 남순현(2016)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여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원들은 퇴직 후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에서 직업적일인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는 비직업적인 일에 비해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교원들의 인식이 밖으로 드러난 만큼 고령화 사회

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연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문항별 인식에서 퇴직 후 연령통합적 삶을 위한 일과 여가를 위한 자기계발 학습에서 일을 위한 자기계발학습이 여가를 위한 자기계발학습보다 관심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은 높았는데, 이는 직업적인 특성과 평생학습사회 도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의 요구에서 ‘내용의 필요성’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영역은 여가-학습 통합영역의 건강관리, 취미·오락 활동, 관계증진활동, 재정관리였다. 가장 낮은 영역은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 영역의 직업적일인 재취업과 창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허정무(1994), 김신일 외(1999), 이정의(2002), 박표진(2009), 박기열(2011), 구경희(2014), Riley & Riley(2000)의 연구와 유사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정한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에서 사회공헌일자리와 돌봄활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여가-학습의 통합에서 평생학습의 이해와 세대통합에서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준비시기’에서 선행연구들은 영역별 운영시기에 대한 차별성 없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같은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영역별로 필요한 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12개의 문항별로 운영 시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영역별 준비시기 요구는 다양했다. 여가-학습 통합 영역은 40대,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과 세대통합은 50대에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30대 이하의 젊은 교원들의 여가-학습 통합영역은 20~30대에,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과 세대통합 영역에서는 20~40대에 요구하는 비율도 25% 정도로, 40대 이후보다는 빠른 준비시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젊은 교원들이 입직 시부터 원하는 시기에 다양한 영역의 퇴직준비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수정 외(20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셋째, 교육방법에서 선행연구 중 교육방법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한 구경희(2014), 김미정(2010), 김신일 외(1999), 박기열(2011), 이정의(2002), 정기범(2011), 최창희(2006), 허정무(1994)는 주로 집합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 개인별 맞춤형 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의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가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교육방법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선호하는 비율은 28.4~44.2%, 온라인 교육은 15.7~42.0%, 집합교육 27.0~45.9%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선호하는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재취업, 재정관리, 관계증진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정보제공 및 상담을 가장 선호하였고, 평생학습의 이해,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는 온라인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다. 창업, 사회공헌일자리, 돌봄활동, 건강

관리, 취미·오락 활동은 집합교육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역별로 교육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퇴직준비교육의 주체에서 선행연구 중 준비주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구경희(2014), 김미정(2010), 김신일 외(1999), 김희수(2001), 박기열(2011), 박표진(2009), 유재복(2012)의 연구들은 정부, 관련 기관, 시·도 교육청 등을 전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준비교육의 주체로서 교원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준비주체가 ‘본인’이라고 한 비율은 21.5~63.9%, ‘시·도 교육청’이라고 한 비율은 11.3~34.0%, ‘정부’라고 한 비율은 24.0~51.5%로 나타났다. 정부뿐만 아니라 본인과 시·도 교육청도 책임 있는 준비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 문항별 준비주체에 대한 결과는 다양했다. 준비주체가 ‘본인’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한 영역은 재정관리, 건강관리, 취미·오락 활동, 관계증진활동으로 나타났고, ‘정부’라고 가장 높게 응답한 영역은 재취업, 창업(귀농포함), 사회공헌일자리, 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학습의 이해, 노년기 생애발달 이해, 연령통합적 삶의 이해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한 영역은 없었다. 이는 지금까지 퇴직준비교육은 정부가 준비하여 제공해 주는 일방적인 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준비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교원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교원들의 퇴직준비교육에서 거의 역할이 전무한 각 시·도 교육청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요구 중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주로 연수경비를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에 치중하고 있었다(김신일 외, 1999; 김희수, 2001; 박기열, 2011; 박표진, 2009; 허정무, 1994). 본 연구는 퇴직준비교육의 지원에 대해 보다 다양한 요구가 필요함을 가정하고 조사한 결과, 연수비 지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년연장 및 관련법 개정, 시·도 교육청 중심 운영, 상담사 배치, 정보지 발간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준비교육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등교원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해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퇴직준비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사회와 그 위험 및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연수가 모든 연령대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준비교육의 대상은 그 동안 퇴직준비교육에서 제외되었던 젊은 20대와 3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위험은 늘어난 노년기와 줄어든 연금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셋째, 퇴직 후 일-여가-학습이 안배된 균형적인 삶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은 입직 시부터 퇴직 시까지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현대의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교원 또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자이다. 자신의 직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퇴직 후 제2의 일과 여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퇴직준비교육의 방법은 영역별로 정보제공 및 상담,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방법을 혼용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경비와 시간의 부담이 많은 집합교육은 정년퇴직이 임박한 퇴직 5년 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정보제공 및 상담, 온라인 교육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퇴직준비교육의 주체로서 정부 주도의 선형연구들과는 달리 준비주체로서 본인도 정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방관자로서 일관했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주체로서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역할 전환을 기대한다. 여섯째, 지원에 관한 요구는 퇴직준비교육의 주체로서, 교원들 스스로 퇴직 후 일과 여가에 평생학습에 대한 연수비를 현행보다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2의 일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진단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상담사 상주와, 온라인 상담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문항으로 고령화 사회의 위험인식과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등교원 퇴직준비교육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연구를 하여, 연령통합사회의 의미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령통합적 삶에 대한 준비에서 상대적으로 요구가 낮은 퇴직 후 직업적일과 비직업적일의 통합에서 요구가 낮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안해 본다. 둘째, 중등교원들의 연령통합성에 대한 인식이 중·고등학생들의 연령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구경희(2014).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요구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김경호(2004).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사회연구**, 5(1), 27-52.
- 김경호(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553-582.
- 김미정(2010). **초등퇴직교원의 사회활동 참여실태와 수요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세돈, 김상조(2006).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한 노후보장제도의 재정립. **한국사회복지개발연구원**, 12(3), 205-234.
- 김신일, 홍기형, 강태중, 이화정, 변종임, 나향진(1999). **퇴직교원의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 김정하(1995). 현대산업사회에서 여가의 부정적 기능분석. **관광연구논총**, 7, 91-111.
- 김호식, 정미녀, 손경숙(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 9(1), 73-93.
- 김희수(2001). **퇴직교원의 교육활동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남순현(2016). **노인의 일과 여가 의미에 대한 Giorgi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기열(2011). **교원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인식·요구조사 및 프로그램 탐색**.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2003).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 박표진(2009). **퇴직준비교육이 퇴직교원의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백경숙, 권용신(2007). 노년기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6.
- 송기창(2006). **교원 퇴직준비교육 요구와 필요성**.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신덕상(2014). 성인의 학습 참여 동기 유형과 학습 메타포의 관계. **한국평생교육**, 2(1), 101-109.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2017.01.01.). 울산광역시 중등교원 현황.
- 유재복(2012).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이 퇴직수용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윤영채(2017). **40-50대 중등교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분석-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윤진(199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수정, 김기홍, 김윤정, 박수정, 김영식, 박세훈, 한동숙, 김민정(2018).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활성화 방안**.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정의(2002). **교사의 퇴직기대 유형, 결정요인 및 퇴직준비교육과의 관련성**.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장지연(2004). 고령인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정책. **사회연구**, 5(1), 99-112.
- 정경희(2001). 인구고령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2, 47-53.
- 정기범(2011). **중등교원의 퇴직생활 및 퇴직준비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정순돌, 최혜지, 배은경, 이경민(201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 **한국노년학**, 31(3), 813-829.
- 정순돌, 김주현, 송아영, 이해원, 주경희, 장철준, 최혜지, 전해상, 정세미, 이고은(2016). **연령통합: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 고양: 공동체.
- 정순돌, 기지혜, 최혜지(2015).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 161-186.
- 정지범, 류현숙(2009). **한국인의 사회위험 지각과 정책적 함의**. 기본연구과제, 2009, 1-300.
- 주경희, 김주현, 정순돌, 임병우(2017).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령통합 인식에 대한 연구-청년집단과 노년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 71-93.
- 최성재(2014).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0, 151-160.
- 최숙희(2008).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최창희(2006). **교원의 정년퇴직 설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한정란(2000).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 허원구, 이정훈(2004). 고령화 사회의 노인역할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4(2), 53-79.
- 허정무(1994).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Atchley, R. C., & Barush, A. S. (2004). *Social forces &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 Culter, M. D., Poterba, M. J., Sheiner, M. L., & Summers, H. L. (1990).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1), 1-73.
- Holzmann, R., & Jorgensen, S. (2000). *Social risk man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New York: World Bank.
- Houle, C. O. (1988). *The inquiring mind (2nd ed.)*. Norman, OK: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 Loscocco, K. (2000). Age integration as a solution to work-family conflict. *The Gerontologist*, 40(3), 292-300.
- Parker, S. (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Riley, M. W., & Riley, J. W. (1994). Age integration and the liv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34(1), 110-115.
-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ed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270.
- Torres-Gil, F. (1992). *The new aging politics and change in America*. NY: Auburn House.
-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261-266.
- Warr, P. B.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